

# 【한국사】

1.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이 겪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②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카(E. H. Carr)가 쓴 『역사는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구이다.
- ④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2. 한국의 구석기시대 문화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였고 일부 막집도 짓고 살았다.
- ② 전기 구석기시대에는 짝개 같은 자갈돌 석기를 주로 만들었고 주먹도끼도 일부 제작했다.
- ③ 중기 구석기시대에는 르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페썬르개가 한반도 북부에 등장한다.
- ④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간접떼기나 눌러떼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3. 고조선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 ㉠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하는 문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管子)』이다.
- ㉡ 조선시대에는 기사동래설(箕子東來說)을 인정하고 있었다.
- ㉢ 위만조선(衛滿朝鮮)은 발달된 철기에 기반을 둔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 ㉣ 송국리식(형) 토기와 비파형동검의 분포지를 통해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 ① ㉠㉢㉣                      ② ㉠㉡㉢
- ③ ㉡㉢                      ④ ㉠㉢

4. 다음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열한 것은?

- ㉠ 신라가 울령을 반포함
- ㉡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 후 복속함
- ㉢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함
- ㉣ 백제가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함
-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
- ㉥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맺음

- ① ㉡-㉣-㉢-㉤-㉥-㉠                      ② ㉢-㉣-㉤-㉡-㉥-㉠
- ③ ㉤-㉢-㉣-㉡-㉠-㉥                      ④ ㉢-㉡-㉣-㉤-㉠-㉥

5. 다음 기록에서 거론하는 인물이 묻힌 무덤은?

이름이 사마(斯摩)이고 모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중략] 사신을 양(梁)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12월에 양 고조(高祖)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여 말하기를, “[중략] 그의 정성이 지극하여 짐은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옛 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사지절(使持節) 도독(都督) 백제제군사(百濟諸軍事)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으로 봉함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 ① 서울 석촌동 3호 고분                      ② 부여 능산리 고분
- ③ 익산 쌍릉                      ④ 공주 무령왕릉

6.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에서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② 낙랑군 등과의 원거리 교역을 통해 중계무역을 해 왔다.
- ③ 소백산맥 이남에서 이례적으로 비옥한 농경 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 ④ 포상8국(浦上八國)의 난을 계기로 신라 세력을 축출하고 가야 연맹의 맹주로 등극하였다.

7. 다음 기록이 지적하는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옳게 서술한 것은?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존비가 있어서, 그에 따라 호칭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른 것이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되어,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비야함을 혐오하니, 신분에 따른 예의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이 쇠퇴하여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 ① 중앙 귀족이 위축되고 자영농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방 호족이 득세하였다.
- ② 평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서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 데도 숯을 사용하였다.
- ③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기인 가을에 돌려받는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 ④ 국제 무역을 독점하던 일부 해상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8.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하여 틀리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 ① 무예 솜씨와 실무 능력을 존중하는 무관은 음서제도보다는 과거 제도를 통해 선발하였다.
- ② 승과는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③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하여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④ 원칙적으로 대역죄나 불효·불충죄를 저지르지 않은 양인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

9. 다음 기록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가 아닌 것은?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중략]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先王)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① 원나라의 순제가 주원장의 군대에게 패해서 사망했다.
-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 ③ 기존 정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 세족을 보호하였다.
- ④ 두 차례의 홍건적 침입을 당하며 왕이 복주(안동)까지 피신하기도 하였다.

10. 고려시대의 예술 및 문화에 대하여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은?

- ①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다포 양식이다.
- ② 사치스러운 귀족 문화와 불교 의식의 수요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공예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은입사, 나전 칠기 및 상감청자 등을 들 수 있다.
- ③ 무신 집권기에는 패관 문학과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이후 신진 사대부 사이에서는 경기체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속요가 각각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④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이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파주 용미리 석불 입상과 같은 거대 석불도 조성되었다.

11.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 ②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하였다.
- ③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예문관은 국왕의 교지 작성을 담당하였다.

12. 다음 중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싼 대립으로 두 파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김효원 등 신진 관료는 ㉠, 심의점을 중심으로 한 기성 관료는 ㉡이라 하여 분당(分黨)되었다.

- ① ㉠은 대체로 이이와 성혼의 학맥을 이었다.
- ② ㉡이었던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 ③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을 ㉡ 출신이 주도하였다.
- ④ ㉠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였다.

13. 밑줄 친 ‘이 역서’를 편찬한 왕이 재위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계』와 『태양통계』 등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서(曆書)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①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이 과거강의 건주위를 정벌하였다.
- ②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 ③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 ④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양인개병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14.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라고 하였다.

- 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 기구로 설치되었다.
- ②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에 의한 세도정치 시기에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 ③ 흥선대원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 ④ 의정부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15. 밑줄 친 ‘왕’이 재위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채제공이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외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①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 ② 전세(田稅)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 ③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다.
- ④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16. 다음 사건 중 발생 연도가 다른 하나는?

- ① 박문국이 설립되어 『한성순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 ② 전환국이 설립되어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였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17. 다음 중 3·1운동의 배경·전개·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 처리에 적용되었다.
- ②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 ③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 ④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 민족 운동이다.

18. 다음 중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안창호가 임명되었다.
- ②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 ③ 초대 경무국장(警務局長)으로 김구가 재직하였다.
- ④ 1936년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고 항일 통일 전선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19.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이 아닌 것은?

제39조 제1항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제1항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①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 등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을 공격하였다.
- ② 방직회사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 ③ 북한 민족보위성 경찰국 소속의 무장 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다.
- ④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되었다.

20. 다음에 제시한 남북한 간 합의문을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남북 기본 합의서
- ㉡ 4·27 판문점 선언
- ㉢ 7·4 남북 공동 성명
- ㉣ 6·15 남북 공동 선언

- ① ㉠-㉢-㉣-㉡                      ② ㉡-㉠-㉢-㉣
- ③ ㉢-㉣-㉠-㉡                      ④ ㉢-㉠-㉣-㉡